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미셀 콜로이드에 의한 Ca^{2+} 의 은폐에 대한 연구

權 五 潤 · 白 禹 錄*

맑음 산업 주식회사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992년 6월 20일 접수)

The Study for the Sequestration of Ca^{2+} by the Micelle Colloid of Nonionic Surfactants

Oh-Yun Kwon and U-Hyon Paek*

Limpid industry Co. LTD., Pusan,

*Department of chemist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inju, Korea

(Manuscript received 20 June 1992)

Abstract

The effects of Ca^{2+} ion on the formation of micelle colloid of nonionic surfactants, nonylphenol-(ethylene oxide)_n [NP-(EO)_n; n=11,40,100] were investigated by the iodine solubilization method. The characteristics of spectra depended on the concentration of Ca^{2+} ion and the number of EO unit. Above CMC(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the intensity of the CT (charge transfer) band by the addition of Ca^{2+} ion for the NP-(EO)₁₁ and NP-(EO)₄₀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nd for the NP-(EO)₁₀₀ continuously increased. The increase in the intensity of CT band were attributed to the compactness of micelle in the presence of Ca^{2+} ion. These phenomena may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linear ethylene oxide (EO) chain, relatively free to assume various configuration in aqueous solution, could form a pseudo-crown ether structures capable of forming complexes with Ca^{2+} ion.

1. 서 론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생활폐수의 방류량이 산업 폐수의 방류량에 못지않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활폐수의 주범은 급속한 세탁기의 보급으로 인한 합성세제 사용량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합성세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 LAS(Linear alkylbenzene sulfonate)를 세척 활성성분으로 20-30%, 세척 보조제로서 인산염 빌더 30-50%, 기타 소량의 형광 증백제, 분산

제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때 빌더의 비중이 계면활성제 못지않게 큼을 알 수 있다. 빌더로 사용되는 인산염은 중량의 목적도 있지만 음의 하전을 띤 오물콜로이드 입자의 계면전하를 떨어 놓리는 H^+ , Ca^{2+} , Mg^{2+} 와 같은 양이온은 착물형성에 의해 은폐시킬 뿐만 아니라, OH^- 를 공급하여 오물 콜로이드 입자를 안정화시켜 세척작용을 돋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산염은 수중생물의 좋은 영양소가 되므로 세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 영양화는 수질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인산염 대체 빌더의 개발과 아울러 저 빌더

혹은 무 빌더 세제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Schick(1987)는 합성세제의 세척활성 성분으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일부 대체할 경우, 경수에 구애됨이 없이 세척이 잘 되므로 빌더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Myers(1988)는 수용액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배향을 가질 수 있는 polyoxyethylene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선형 EO(ethylene oxide)사슬이 수화환경이 큰 양이온과 치밀을 형성할 수 있는 유사 크라운 에테르 형태의 배향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설은 합성세제 제조시 빌더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메커니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Ross와 Oliver(1959)에 의해 제시되고, Chang et al(1988, 1989)이 발전 시킨 iodine solubilization method를 이용하여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미셀 콜로이드형성에 따른 분광학적 성질이 Ca^{2+} 이온 존재하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Ca^{2+} 이온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미셀에 의한 은폐 여부를 규명해 보고자 한 것으로서, 전고(Kwon and Paek, 1992, Kwon et al., 1992)에서 후속 과제로 제시한 EO 단위수의 영향을 본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NP-(EO)_n [nonylphenol(ethylene oxide)_n, 4-(C₉H₁₉)C₆H₄O(CH₂CH₂O)_n; n = 11, 40, 100]은 Aldrich 특급 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요오드는 Junsei 특급 시약을 KI존재하에서 2차에 걸쳐 승화정제 하였으며, CaCl₂는 Junsei 특급 시약을 이용하였다. 용매로 사용한 물은 G.S 100 System(Toyo, Japan)을 통과시켜 정제하였으며, 전도도가 $1 \times 10^7 \Omega^{-1}\text{cm}^{-1}$ 이하인 값을 나타내었다.

2.2 실험방법

계면활성제 용액은 NP-(EO)_n(n = 11, 40, 100)을 물에 녹여 일정농도의 저장용액으로 만든후 25ml volumetric flask에서 희석하여 각각 $5 \times 10^{-5} \sim 7 \times 10^{-4}$ M 농

도로 제조하였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 염 용액은 CaCl₂를 물에 녹여 제조한 저장 용액을 상기용액에 각각 첨가함으로써 다양한 농도로 제조하였다. 요오드 수용액은 정제한 요오드를 물에 녹여서 3.0×10^{-4} M로 제조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였다. 흡광도 측정은 Beckmann Model DU-70 분광 광도계(U.S.A)를 이용하여 25°C로 항온을 유지하면서 모든 실험을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NP-(EO)_n [nonylphenol(ethylene oxide)_n, 4-(C₉H₁₉)C₆H₄O(CH₂CH₂O)_n; n = 11, 40, 100]은 수용액 중에서 요오드와 전하이동 치밀형성에 기인한 새로운 피크를 생성한다. Ca^{2+} 이온의 존재하에서 이러한 피크는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NP-(EO)_n의 미셀 생성 특성과 Ca^{2+} 이온의 EO(ethylene oxide)사슬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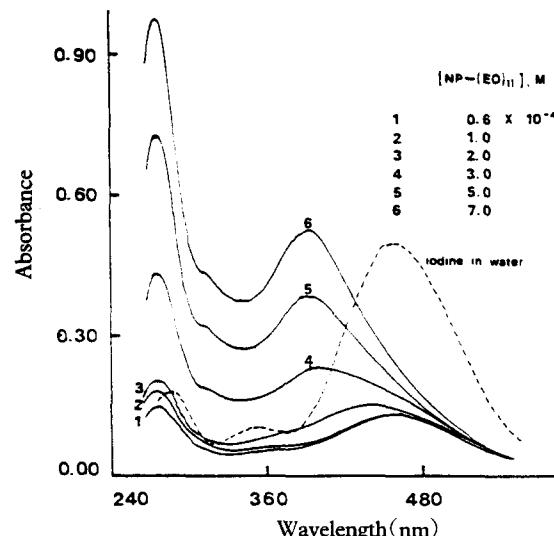


Fig. 1. The absorption spectra to the CT interaction of NP-(EO)₁₁ With iodine in water at 25°C.

Ca^{2+} 이온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NP-(EO)_n의 농도 변화에 따른 3.0×10^{-4} M 요오드와의 전하이동 치밀형성에 따른 흡수곡선의 변화양상은 대단히 유사하게 나타나며, Fig.1은 NP-(EO)₁₁에 대한 것으로서 25°C

수용액에서 측정한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었다. 450 nm에서 나타나는 요오드의 최대 흡수 피크가 $1 \times 10^{-4}\text{M}$ 농도 까지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3 \times 10^{-4}\text{M}$ 이 되면 390nm영역으로 이동될 뿐만 아니라 흡수강도도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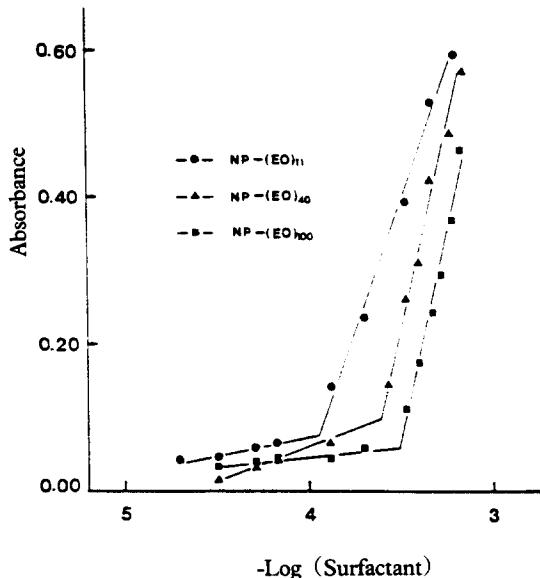


Fig. 2. The change in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of iodine by the addition of nonionic surfactant in water at 25°C.

Fig. 2은 요오드와 $\text{NP}-(\text{EO})_n$ 간의 전하이동 착물형 성에 따른 최대 흡수파장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text{NP}-(\text{EO})_n$ 의 농도의 함수로 도시한 그림으로써, 흡광도 변화폭이 CMC(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를 기점으로하여 크게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text{NP}-(\text{EO})_n$ 이 초기에는 용매표면 혹은 용기의 벽에 흡착되거나 용매 내부에 단량체 상태로 소량 분산되다가 특정농도 이상이 되면 회합체를 형성하여 용매중에 다량 확산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O사슬을 구성하는 산소원자가 전자 받게인 요오드와 전하이동 착물을 형성 할 수 있는 전자 주게임을 상기할 때, 회합체 즉 미셀 형성에 따른 전자 주게와 전자 받게간 궤도함수 겹침의 증가가 흡광도의 큰 증가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ig. 2에서 CMC는 $\text{NP}-(\text{EO})_{11}$, $\text{NP}-(\text{EO})_{40}$ 그리고 $\text{NP}-(\text{EO})_{100}$ 의 순으로 증가하-

여 EO 단위수에 뚜렷이 의존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text{NP}-(\text{EO})_n$ 분자의 EO 단위수가 증가하면 물 분자와의 수소결합 능력이 커지게되어 단량체 상태로 수화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져서 회합체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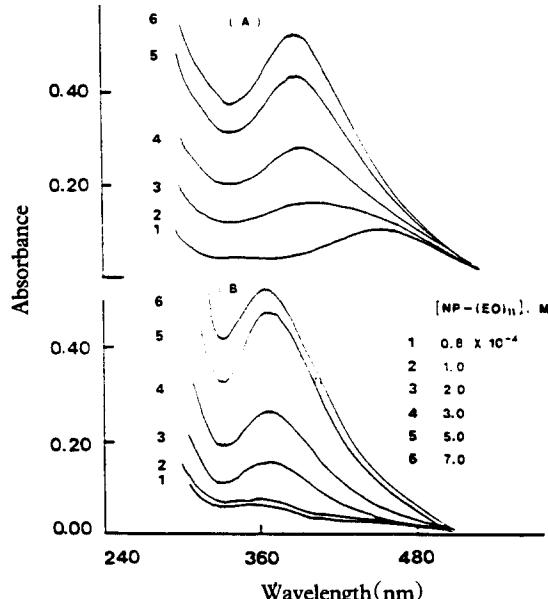


Fig. 3. The absorption spectra to the CT interaction of $\text{NP}-(\text{EO})_{11}$ with iodine in the presence of CaCl_2 in water at 25°C.

CaCl_2 concentration : (A) 0.1M (B) 0.4M

Fig. 3과 4는 Ca^{2+} 이온 존재시 $\text{NP}-(\text{EO})_n$ 농도변화에 따른 요오드와의 전하이동 상호작용을 25°C 수용액 중에서 측정한 것이다. $\text{NP}-(\text{EO})_{11}$ 와 $\text{NP}-(\text{EO})_{40}$ 은 유사하므로 그 중 $\text{NP}-(\text{EO})_{11}$ 을 대표적으로 Fig. 3에 나타내었다. (A)와 (B)는 각각 Ca^{2+} 이온 농도가 0.1M과 0.4M인 조건에서 측정한 것으로서 Ca^{2+} 이온의 농도가 저농도인 (A)에서는 새로운 피크의 생성이 요오드 피크를 기점으로 한 단파장 쪽으로의 이동을 보여 Ca^{2+} 이온 부재시 측정한 Fig. 1과 유사하지만, 고농도인 (B)에서는 요오드 피크 대신 350nm에서 I_3^- 피크가 생성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장파장 쪽으로 이동되어 375nm 영역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Ca^{2+} 가 고농도에 이르면 요오드가 I_3^- 로 가수분해 될 수 있음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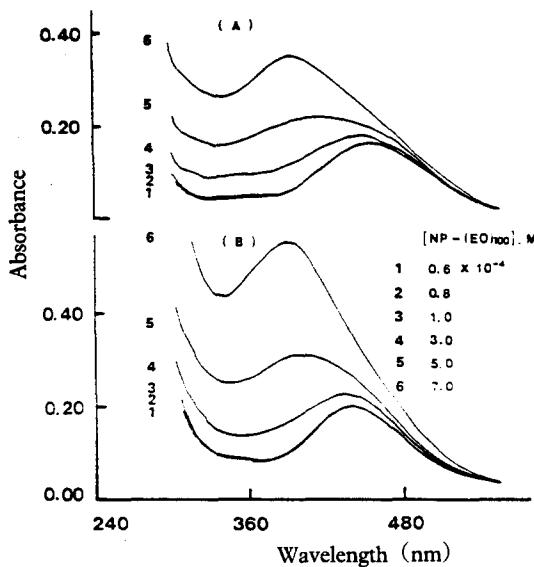


Fig. 4. The absorption spectra to the CT interaction of $\text{NP}-(\text{EO})_{100}$ with iodine in the presence of CaCl_2 in water at 25°C .
 CaCl_2 concentration : (A) 0.1M (B) 0.4M

주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으므로 차후에 규명해볼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Chang et al(1988, 1989)은 KI수용액 중에서 요오드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I_3^- 이온과 EO사슬간의 전하이동 상호작용에 따른 흡수피크를 370nm 영역에서 관찰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B)그림은 $\text{NP}-(\text{EO})_{40}$ 과 요오드와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 I_3^- 와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결국 요오드가 수용액 중에서 다소 가수분해되어 I_3^- 이온으로 존재할지라도 화합체 형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Fig. 4는 $\text{NP}-(\text{EO})_{100}$ 에 대한 것으로 흡수곡선 (A)는 Fig. 3과 유사하지만 (B)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Ca^{2+} 가 고농도인 (B) 그림에서 I_3^- 피크가 관찰되지 않으며 저농도인 (A)와 유사한 요오드 피크를 기점으로 한 단파장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현상으로서 EO사슬이 요오드와 마찬가지로 양이온에 대해서도 전자 주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Ca^{2+} 이온의 EO사슬과의 착물형성에 의한 은폐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text{NP}-(\text{EO})_{11}$ 혹은 $\text{NP}-(\text{EO})_{40}$ 과는 달리 EO 단위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text{NP}-(\text{EO})_{100}$ 은 Ca^{2+} 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킬레이트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B)그림에서 I_3^- 피크가 나타나지 않은 요인은 Ca^{2+} 이온이 EO사슬과 착물형성에 의해 은폐됨으로 인하여 수용액중에 유리된 Ca^{2+} 이온농도의 감소에 따른 요오드의 가수분해 억제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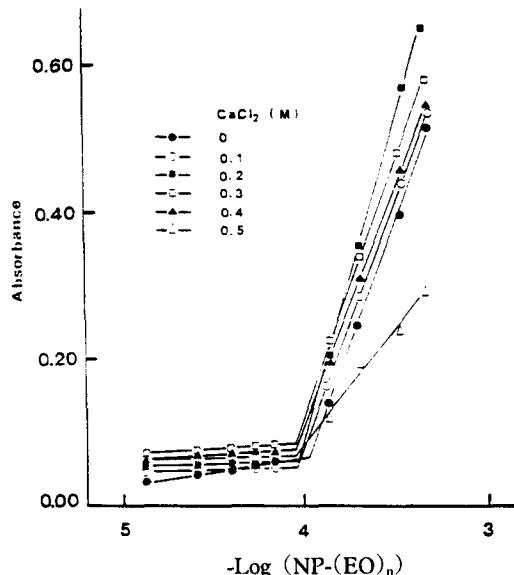


Fig. 5. The absorbance at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plotted against $\log C$ of $\text{NP}-(\text{EO})_{11}$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CaCl_2 in water at 25°C .

Fig. 5와 6 그리고 7은 다양한 농도의 Ca^{2+} 이온 존재下에서 $\text{NP}-(\text{EO})_n$ ($n=11,40,100$)과 요오드와의 CT 상호작용에 따른 최대흡수 과정에서 흡광도 변화를 $\text{NP}-(\text{EO})_n$ 의 농도의 함수로서 도시한 그림이다. 꺾이는 점에서의 $\text{NP}-(\text{EO})_n$ 의 농도를 CMC로 결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Ca^{2+} 이온 존재 유무에 따른 CMC 변화폭을 비교해 보면 $\text{NP}-(\text{EO})_{11}$, $\text{NP}-(\text{EO})_{40}$, 그리고 $\text{NP}-(\text{EO})_{100}$ 의 순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EO 단위수가 많을 수록 미셀형성에 미치는 Ca^{2+} 의 영향이 커짐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EO사슬과 Ca^{2+} 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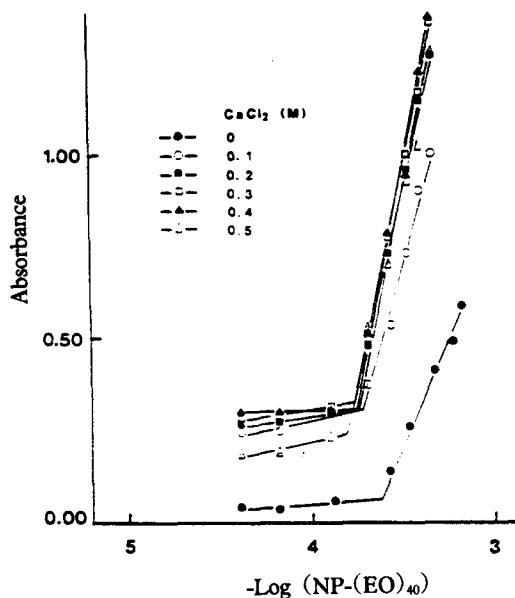


Fig. 6. The absorbance at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plotted against $\log C$ of $\text{NP}-(\text{EO})_{40}$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 of CaCl_2 in water at 25°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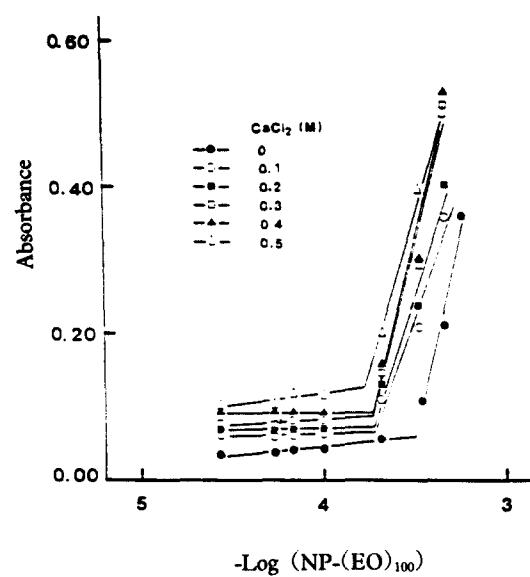


Fig. 7. The absorbance at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plotted against $\log C$ of $\text{NP}-(\text{EO})_{100}$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 of CaCl_2 in water at 25°C .

Table. 1 Values of the CMC of the nonionic surfactant by iodine solubilization method in the presence of the various concentration of CaCl_2 in water at 25°C .

Conc. of $\text{CaCl}_2(\text{M})$	CMC of the Nonioninc Surfactant(M)		
	$\text{NP}-(\text{EO})_{11}$	$\text{NP}-(\text{EO})_{40}$	$\text{NP}-(\text{EO})_{100}$
0	1.05×10^{-4}	2.45×10^{-4}	3.09×10^{-4}
0.1	3.98×10^{-5}	1.91×10^{-4}	1.90×10^{-4}
0.2	3.89×10^{-5}	1.78×10^{-4}	1.86×10^{-4}
0.3	1.78×10^{-5}	1.76×10^{-4}	1.82×10^{-4}
0.4	1.77×10^{-5}	1.74×10^{-4}	1.81×10^{-4}
0.5	1.76×10^{-5}	1.58×10^{-4}	1.66×10^{-4}

Fig. 8과 9 그리고 10은 $\text{NP}-(\text{EO})_n$ 의 농도를 CMC 이하와 이상의 특정농도로 고정시켰을때, 요오드와 CT 상호작용에 따른 최대 흡수파장에서의 흡광도가 Ca^{2+} 이온농도에 의존하는 현상을 도시한 그림이다. Fig. 8에서 (A)는 Fig.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새로운 피크가

생성되기 직전인 흡수곡선 4의 농도조건인 $3 \times 10^{-4}\text{M}$ 에 대한 것이며, (B)는 새로운 피크가 완전히 생성된 흡수곡선 6의 농도조건인 $7.0 \times 10^{-4}\text{M}$ 에서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Fig. 9와 10의 (A)와 (B)농도조건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요오드와 EO사슬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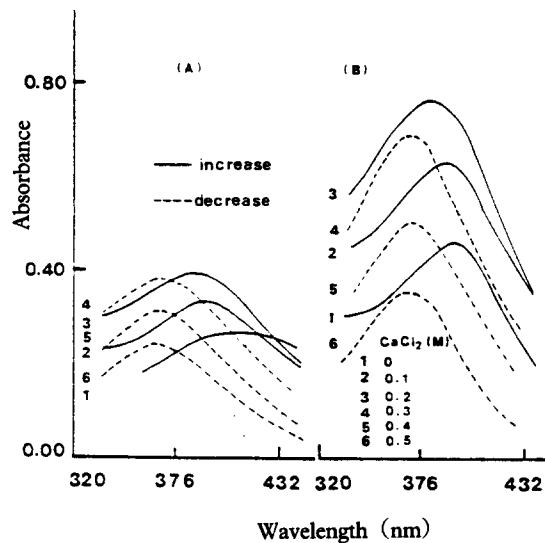


Fig. 8. The change of absorbance at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CaCl_2 in water at 25°C. $\text{NP}-(\text{EO})_{100}$ concentration : (A) $3 \times 10^{-4}\text{M}$ (B) $7 \times 10^{-4}\tex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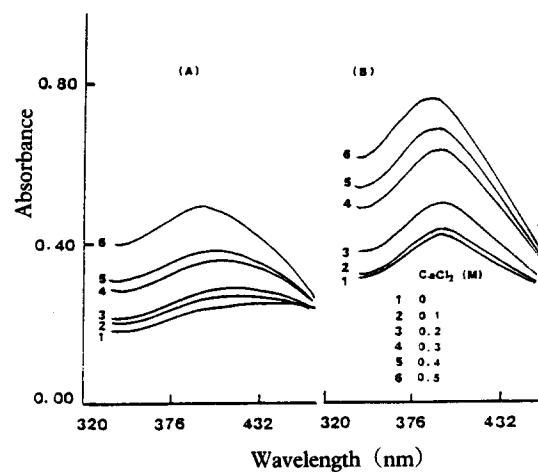


Fig. 10. The change of absorbance at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CaCl_2 in water at 25°C.
 $\text{NP}-(\text{EO})_{100}$ concentration : (A) $5 \times 10^{-4}\text{M}$ (B) $7 \times 10^{-4}\tex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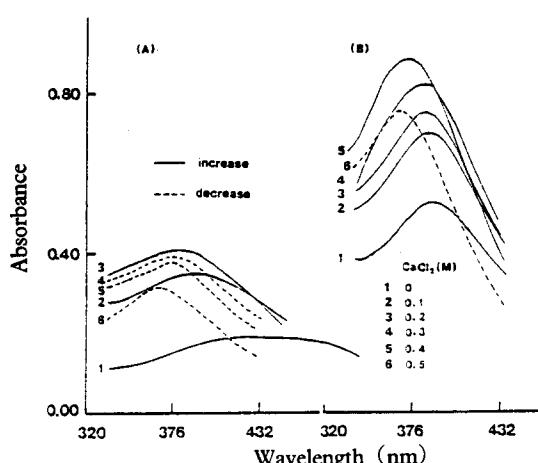


Fig. 9. The change of absorbance at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CaCl_2 in water at 25°C.
 $\text{NP}-(\text{EO})_{40}$ concentration : (A) $4 \times 10^{-4}\text{M}$ (B) $7 \times 10^{-4}\text{M}$

CT상호작용에 따른 최대 흡수 피크의 강도가 Ca^{2+} 이온 농도에 따라 증가하다가 특정농도 이상에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증가하는 곡선들은 실선으로 감소하는 곡선들은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A)그림을 보면 Ca^{2+} 가 첨가되지 않은 흡수곡선 1은 요오드 피크가 $\text{NP}-(\text{EO})_n$ 미셀과 전하이동 착물형성에 따른 새로운 피크로 발전해가는 중간단계에 있으며, 이것은 용액중의 미셀 형성이 초기단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Ca^{2+} 가 0.1M 첨가되면 흡수곡선은 $\text{NP}-(\text{EO})_n$ 미셀과 요오드와의 전하이동 상호작용에 따른 피크와 동일해져서 한정된 계면활성제 농도에도 불구하고 염첨가에 의해 미셀형성이 촉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실선으로 나타낸 상승곡선의 변화 양상은 (A)와 (B)그림에서 공히 Ca^{2+} 이온 농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Ca^{2+} 이온 존재하에서 $\text{NP}-(\text{EO})_n$ 미셀과 요오드와의 전하이동 상호작용에 따른 흡수곡선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요오드와 EO사슬간의 전자 주게와 받게간 궤도겹침 증대의 요인은 회합체수가 늘어나서 미셀크기가 커진 경우 보다는 미셀구조가 느슨한 형태에서

수축되어 조밀해짐으로 인한 미셀의 단위 부피당 요오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EO 단위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Myers (1988) 그리고 Deguchi와 Meguro(1975)의 관점과도 잘 일치한다. 즉 크라운 에테르류가 양이온과 착물을 형성할 수 있듯이, NP-(EO)_n 미셀 표면에 노출된 EO사슬이 수용액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여러가지 배향을 가질 수 있어서 그 틈새들이 유사 크라운에테르구조를 형성하여 비교적 수화반경이 큰 Ca^{2+} 와 같은 양이온과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미셀을 조여들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P-(EO)_n 미셀의 착물 형성에 의한 Ca^{2+} 이온의 은폐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계농도 이상 첨가된 Ca^{2+} 이온은 용액중에 유리되고, 이러한 유리된 Ca^{2+}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요오드를 I_3^- 이온으로 가수분해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점선으로 나타낸 하강 곡선은 은폐되지 않고 유리된 Ca^{2+} 가 요오드를 I_3^- 로 가수분해 시킴으로 인한 NP-(EO)_n 미셀과 I_3^- 이온과의 전하이동 상호작용 피크로 볼 수 있다. Fig. 8과 9 그리고 10을 상호 비교해 보면 EO 단위수가 11, 40, 100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강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계 Ca^{2+} 이온 농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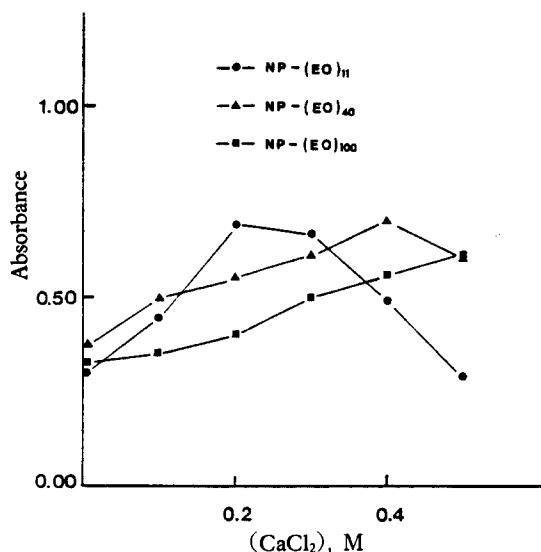


Fig. 11. The absorbance at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to the CT interaction of nonionic surfactant with iodine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CaCl_2 in water at 25°C.

상승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NP-(EO)₁₀₀에 대한 Fig. 10은 Ca^{2+} 의 전농도 영역에서 하강곡선이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Fig. 4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EO 단위수 증가에 따른 Ca^{2+} 이온에 대한 착물형성에 의한 은폐능력이 증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11은 이러한 현상을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도록 Fig. 8과 9 그리고 10의 (B) 흡수곡선만을 취하여 NP-(EO)_n 미셀과 요오드와의 전하이동 상호작용에 따른 최대흡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Ca^{2+} 이온 농도의 함수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O 단위수가 증가하면 하강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계 Ca^{2+} 이온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미셀과의 착물형성에 의해 은폐될 수 있는 Ca^{2+} 이온의 양이 EO 단위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 결 론

결론적으로 NP-(EO)_n(n=11, 40, 100)의 미셀형성에 미치는 Ca^{2+} 의 영향은 Ca^{2+} 이온이 EO사슬이 형성하는 유사크라운 에테르구조와 착물 형성에 의해 NP-(EO)_n 미셀내부로 은폐되는 메카니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와 아울러 합성세제의 세척활성성분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일부 대체할 경우 경수에 구애됨 없이 세척이 잘 되므로 중량제(builder)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Schick et al., 1987)에 비추어 볼 때, 음이온과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혼합 미셀형성과 미셀표면에 상대적으로 길게 노출된 EO 사슬에 대한 Ca^{2+} , Mg^{2+} 이온의 착물 형성에 의한 은폐효과라는 메카니즘설정은 대단히 흥미롭다. 특히 수화반경이 Ca^{2+} 에 비해 큰 Mg^{2+} 이온에 대한 연구와 혼합미셀에 대한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의 규명은 차후에 연구해볼 가치가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Chang, J. H., Ohno, M., Esumi, K. and Meguro, K., 1989, Interaction of tri-iodide ion with anionic surfactant micelles in aqueous solution, *J. Colloid and Surface*, 40, 219.

- Chang, J. H., Ohno, M., Esumi, K. and Meguro, K., 1988, Interaction of iodine with nonionic surfactant and polyethylene glycol in aqueous potassium iodide solution, *J. Am. Oil Chem. Soc.*, 65, 1664.
- Deguchi, K. and Meguro, K., 1975, *The effects of inorganic salts and urea on the micellar structure of nonionic surfactant*, *J. Colloid Interface Sci.*, 50, 223.
- Kwon, O. Y. and Paek, U. H., 1992, The effects of Ca^{2+} on the interaction of nonionic surfactant with iodine in aqueous solution, *J. Korean Chem. Soc.*, 36, 5.
- Myers, D., 1988, *Surfactant Science and Thchnology*, VCH Publishers, Inc., New York, 124p.
- Park, J. S., Kwon, O. Y. and Paek, U. H., 1992, The interaction of nonionic surfactant with iodine in the presence of Ca^{2+} , Submitted to *J. Korean Chem. Soc.*, for publication.
- Ross, S and Oliver, J. P., 1959, A new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of un-ionized association colloids in aqueous or in non-aqueous solution, *J. Phys. Chem.*, 63, 1671.
- Schick, M. J., 1987, *Nonionic surfactant, Surfactant Science Ser.*, Vol. 23, Marcel dekker, Inc., New York, 809p.